

7월 4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1,300원대 안착 시도... 외환 방파제 체크하기

서울, 7월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 정도를 살피며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1,300원대 안착 여부를 타진할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80-1,310원이다.

주요국 물가 상승 압력 확대 속 주요국 제조업 지표 부진이 뒤따르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불안도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관련 주가 급락에 국내 증시도 압박받고 있다.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따르는 한국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국내 증시와 원화 약세 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비 8.6% 상승하며 한 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워 유럽중앙은행(ECB)의 긴축 가속 행보가 예상되지만, 유로존 경기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ECB가 미국 긴축 속도를 앞설 가능성은 작은 만큼 달러 강세 모멘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로 인한 달러 강세 압력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

최근 달러/원 급락에도 전방위적인 커스터디 및 결제 수요가 매번 확인됐던 터라 대외 분위기에 편승한 달러/원 상승 시도는 틈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 1,300원대에서 환율의 일방적인 상승세를 예상하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다할 대외 분위기 반전 없이는 환율의 의미 있는 조정을 예상하기 힘든 국면이다.

주중 공개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6월 회의록 내용을 확인하며 국내외 금융시장이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가운데 주 후반에 나올 미국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한편 호주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돼 있는데, 6월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연속 50bp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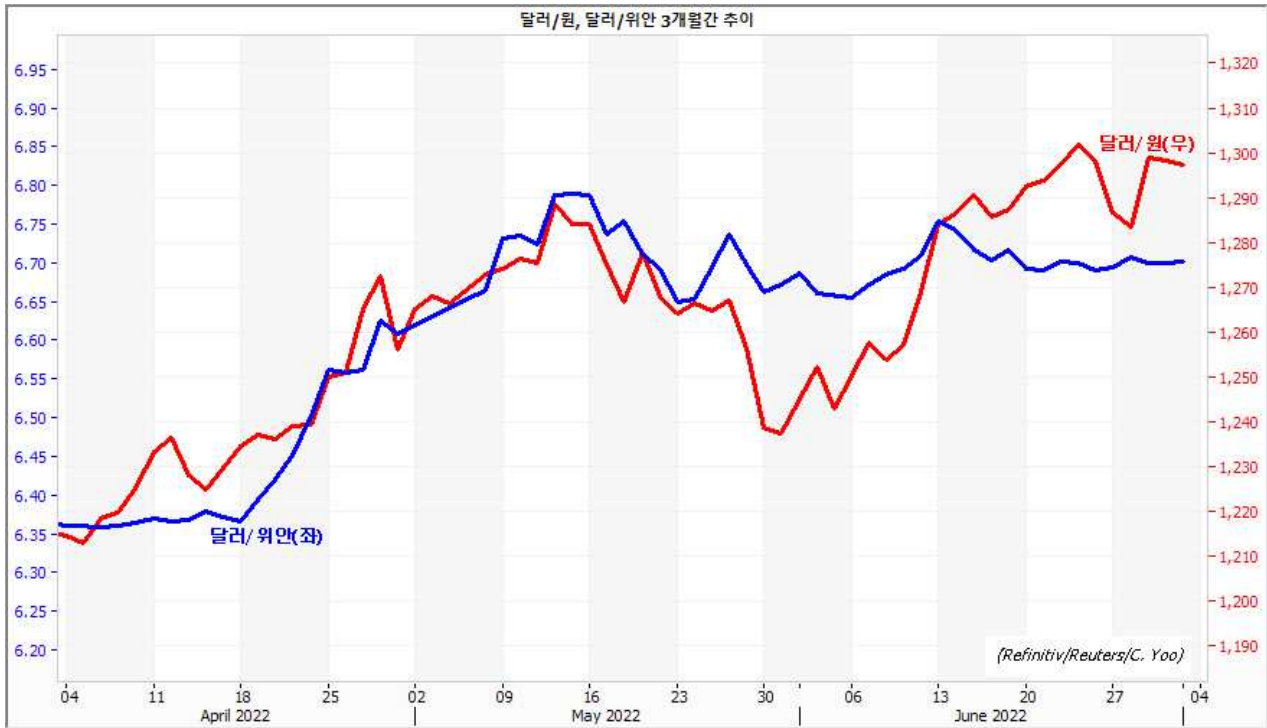
국내에서 주목할 지표로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외환보유액 및 5월 국제수지(잠정) 등이 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비 5.9%로 지난 2008년 7월(5.9%) 이후 최고치가 전망됐다.

한편, 환율 급등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부터 급감 중인데, 지난 6월 환율이 13년 만에 1,300원대로 상승한 데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분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최근 무역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외환 수급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5월 경상수지 추이는 챙겨 봐야 할 핵심 지표다.

2300 선까지 무너진 코스피와 이에 따른 외인 매매 동향 따라 원화를 둘러싼 투자심리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상승 변동성 확대 정도를 주목하며 1,300원대 안착 여부를 타진할 전망이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7월4일(월)

- 한국은행: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특징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BOK이슈노트 2022-24) (12:00)

7월5일(화)

- 한국은행: 2022년 6월말 외환보유액 (06:00)
- 통계청: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기획재정부: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09:00)
- 금융감독원: 원장 여전사 CEO 간담회 개최 (10:00)
- 기획재정부: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14:3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7월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제도) 시행 (배포시)

7월6일(수)

-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이효과 분석 (BOK이슈노트 2022-25) (12:00)
- 한국은행: 2022년 1/4분기 자금순환(잠정) (12:0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12:0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배포시)

7월7일(목)

- 한국은행: 2022년 5월 국제수지(잠정) (08:00)
- KDI: KDI 경제동향(2022. 7) (12:00)
- 통계청: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정책부처 협의회」개최 (16:00)

7월8일(금)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주재) (08:00)
- 금융감독원: 원장 저축은행 CEO 간담회 개최 (10:30)
- 기획재정부: '22.7월 국고채「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17: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단위	이전수치
7월4~6일	23:00	미국	자동차판매	6월		Units	2.670M
7월4일	17:30	유로존	셴틱스지수	7월		Index (diffusion)	-15.8
7월4일	18:00	유로존	생산자물가YY	5월	37.1%	Percent	37.2%
7월5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최종	6월		Index (diffusion)	54.2
7월5일	14: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6월		Index (diffusion)	41.4
7월5일	17:00	유로존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최종	6월	52.8	Index (diffusion)	52.8
7월5일	23: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5월		Percent	0.7%
7월5일	23:00	미국	공장주문 MM	5월		Percent	0.3%
7월6일	18:00	유로존	소매판매 MM	5월	0.3%	Percent	-1.3%
7월6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7월1일 주간		Index	322.7
7월6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최종	6월		Index (diffusion)	51.6
7월6일	23:00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PMI	6월	55.7	Index	55.9
7월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6월		USD	1,329.7B
7월7일	14:00	일본	경기동행지수	5월		Index	0.0
7월7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5월		Index	2.1
7월7일	20: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6월		Person	20.712k
7월7일	21:15	미국	ADP 전국고용동향	6월	200k	Person	128k
7월7일	21:30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6월27일 주간		Person	231k
7월7일		중국	외환보유고	6월		USD	3.128T
7월8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5월		Percent	-1.7%
7월8일	08:50	일본	은행대출 YY	6월		Percent	0.7%
7월8일	08:50	일본	경상수지	5월		JPY	501.1B
7월8일	21: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6월	295k	Person	390k
7월8일	21:30	미국	실업률	6월	3.6%	Percent	3.6%
7월8일	23:00	미국	도매재고 수정치 MM	5월		Percent	2.0%
7월8일	23:00	미국	도매판매 MM	5월		Percent	0.7%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7월4일(월)

- ⊙ 휴장국가: 미국 (독립기념일)

7월5일(화)

- ⊙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오후 1시30분)
- ⊙ 영란은행, 7월 금융안정보고서 발행 (오후 6시30분)

7월6일(수)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 연은 주최 행사서 개·폐회사 (오후 10시)
-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14~15일 통화정책회의록 공개 (7일 오전 3시)

7월7일(목)

- ⊙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주최 행사 참석 (8일 오전 2시)
- ⊙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리틀록 지역회의소 오찬 행사 연설 (8일 오전 2시)

7월8일(금)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2022년 엑상 프로방스 경제회의 참석 (오후 8시55분)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푸에르토리코 대학교 주최 행사 연설 (자정)

▶ 금주 세계 5대 이슈

⊙ ECB의 분열 방지책

유럽중앙은행(ECB)은 7월1일부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채권 만기 상환금을 이탈리아 등 남부 국가들의 채권 매입에 활용하게 된다.

이들 국가의 차입 금리가 유로존 내 부유한 국가들보다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직까지는 순조롭다. ECB의 지원 기대감에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는 6월 중순 이후 100bp 낮아졌고, 2주 전 위험 수준인 250bp까지 올랐던 독일 국채 대비 수익률 프리미엄은 200bp 선으로 내려왔다.

이런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씨티의 애널리스트들은 스프레드 축소가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시장은 500억유로 규모의 채권 재투자를 이미 반영했다. 시험대는 이제부터다.

⊙ 미국 고용보고서

몇몇 미국 경제지표는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150bp 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멈추지 않으면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8일에는 연준의 두 가지 임무 중 다른 하나인 고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줄 고용보고서가 발표된다.

애널리스트들은 6월 취업자 수가 29만5,000명 증가했으리라고 추정했다. 이 수준을 현저히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 금리 인상폭 축소 또는 금리 인상 속도 둔화 전망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트레이더들이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을 낮추면서 주식시장이 랠리를 보였다. 따라서 월가 일부 투자자들에게 고용지표 부진은 희소식이 될 수도 있다.

⊙ 호주 금리 결정

필립 로우 호주 중앙은행(RBA) 총재는 7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5bp 인상 또는 50bp 인상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로우 총재가 50bp를 선택하고, 금리가 현재 0.85%에서 8월까지 1.5%로 상승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RBA는 지난달 25bp 인상 예상과 달리 50bp 인상을 전격 단행해 시장을 놀라게 한 바 있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호주달러 약세로 수입 물가가 상승해 이같은 베팅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로우 총재가 금리 인상 리스크를 폄하한 뒤에 결국 무릎을 꿇었던 전력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2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가리키는 가운데 트레이더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리라고 추측하고 있다.

⊙ 동유럽 국가들 금리 결정

폴란드와 헝가리 등 일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신흥시장 내에서도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는 오랜 믿음이 올해 들어 흔들리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두 자릿수 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 통화 절하 등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헝가리 중앙은행은 금리를 예상의 세 배 이상인 175bp 인상해 고통스러운 물가 압력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포린트화 가치는 유로 대비 사상 최저치 부근에서 헤매고 있다.

루마니아는 6일 금리를 4.5%로 7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폴란드는 7일 6%인 금리를 100bp 올릴 것으로 보인다. 세르비아도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인플레이션만이 문제가 아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 중국의 하반기 전망

중국의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에도 MSCI 중국 주가지수는 상반기 12% 하락해, 20%가 빠진 S&P500 지수보다 선방했다.

코로나 봉쇄 완화에 따른 6월 반등이 그 이유 중 하나다. 정부 관리들이 시장과 경제 지원을 약속하고 기술 부문 단속을 완화하면서 투자은행들은 앞다퉀 중국 주식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방의 제재 가능성과 부동산 부문 디폴트 우려 등 역풍도 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모드로 인해 오래 기다려온 정책 완화 속도는 아마도 더딜 것이다.

하지만 서방 및 신흥시장 증시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고전하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낙관적인 하반기를 맞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7월1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97.3	0.1%	-8.4%	-8.6%	유로	1.0429	-1.2%	-8.3%	-6.9%
100엔 대비	960.7	-0.7%	7.5%	+1.8%	엔	135.21	0.0%	-14.9%	-10.3%
유로 대비	1,354.7	0.5%	-0.2%	-1.9%	위안	6.7020	-0.2%	-5.2%	+2.7%
위안 대비	193.83	-0.6%	-3.5%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1,097.26	-1.3%	-14.4%	+18.7%
코스피	2,305.42	-2.6%	-22.6%	+3.6%	나스닥	11,127.85	-4.1%	-28.9%	+21.4%
코스닥	729.48	-2.8%	-29.4%	+6.8%	S&P500	3,825.33	-2.2%	-19.7%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19.21	-1.9%	-17.6%	-4.9%
국고채 3Y	3.439%	-8.4bp	164.1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495%	-17.1bp	148.4bp	+67.6bp	미국채 2Y	2.840%	-22.0bp	211.0bp	+61.0bp
국고채 10Y	3.490%	-14.5bp	124.0bp	+53.7bp	미국채 10Y	2.890%	-25.0bp	138.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108.46	1.3%	43.8%	+55.8%	한국 5Y	52.5bp	2.3bp	30.4bp	-0.7bp
금(현물)	1,811.18	-0.9%	-1.0%	-3.6%	일본 5Y	27.4bp	7.1bp	9.8bp	+2.1bp
TR상품지수	3,566.00	-1.7%	6.8%	+24.6%	중국 5Y	85.2bp	4.0bp	44.0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